



## “G-Spot”, 여성도 사정한다

최 형 기 · 영동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망**은 성기능 장애 환자들, 특히 조루환자들을 마주하다 보면 의외로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된다.

“전회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2분 정도 합니다.”

조루환자들의 성격은 조금증이 대체로 많다. 사정이 빠르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조금이라도 삽입을 빨리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예행연습의 전회단계 없이 바로 삽입하고 1분도 안돼 끝나니 부인은 차라리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고 느끼는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틀린 생각이다.

이들에게 여성의 여러 성감대를 찾아내는데 30분 이상 봉사하라고 해보면 금방 조루증세가 좋아지고 부인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여성의 성감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부위가 똑같지는 않으나 질내의 G-spot, 음핵, 소음순, 유두, 귀باط, 목, 사타구니, 회음부위 등등 모두 예민한 부위들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손가락, 발가락에서도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성도 성행위 시의 국소의 변화를 보면 모두 국소혈류가 증가되고 신경계의 반응, 내분비계 영

향으로 남성과 똑같이 많은 변화를 보인다. 그러므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여러 가지 기질적 및 심인성의 성기능 장애가 많이 있게 된다.

다만 수동적인 자세이므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이니 운전하는 운전자의 미숙, 기질적 장애, 심리적 요인이 다 관계된다.

오르가즘 장애, 성교통, 골반내염증, 자궁내막증, 자궁후굴, 난소낭종 등에서 기질적 원인들을 찾아낼 수 있다.

지난 8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세계 性 학회에서 'G-spot'이 열린 논제가 되었다.

여성의 성감대에 대해서 일찍이 1950년 독일의 산부인과 의사인 그라펜버그박사가 여성 질내에서 성감대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 요도를 따라 후방 약 4~5cm 부근에 존재한다고 보고하면서 이를 G-spot이라 보고한 적이 있다. 손으로 만져보면 마치 거위 목같이 거칠게 만져지나 한곳이 동전같이 부풀어 오르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을 가리킨다.

이 'G-spot' 설에 대해 인도의 사막박사는 인도 고대 성전인 '카마슈트라'에 질과 요도의 중간 부위 깊숙한 곳이 가장 예민하고 애액이 많이 차는 부위로서, 자극받으면 부풀어 오르므로 'poornachandra(만월달)'이라고 기술했다. 따라서 이 부위가 P-spot이고 G-spot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다고 주장하며 P-spot이 맞다고 했다.

중국 천진대학의 Dr. 장은 이미 2,000년전 중국

성고전 '소녀경'의 성교테크닉에 '九淺一深' 및 '八淺二深' 기술로 얇게 자극하는 기록을 하고 있어 이것이 G-spot 자극을 나타낸다고 했다.

어쨌든 여성의 가장 예민한 성감대 부위는 질 입구에서 요도와 같이 주행하는 앞부분의 4~5cm 부분이고 이곳에 요도 주위 분비선들이 많아 극치감을 느낄 때는 애액이 요도를 통해서 사정된다.

이는 질내의 분비물과는 아주 다르며 일부 여성들은 이를 소변으로 잘못 알고 수치감을 느끼기도 하나 이는 잘못된 개념이다. 이 환희의 액체는 구성 성분이 정자가 없는 것만 빼고는 남성의 사정액과 다 비슷해서 전립선 알카리 인산분해효소가 많고 요소나 크레아티닌이 적어 소변과는 확실히 구별되고 있다.

여성 환자들 중에는 방광내시경으로 요도를 자극할 때 성적흥분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요도로 이물질을 넣어 자위행위하는 경우도 있어 요도 부위가 성적으로 매우 예민함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여성을 흥분시키고 극치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희단계에서 G-spot 자극이 필요하고 또한 성행위에서는 정상위보다 여성 상위 또는 후방위가 더 G-spot을 자극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성 사정감을 모르고 지내는 여성은 감각장애 환자일 수도 있으며 여성 자신의 문제 또는 남성의 기교 미숙, 조루증, 발기부전증 등이 모두 문제가 된다. [2]

## 의 보 상 식

###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문** 뺑소니 차량에 의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  
니다. 이런 경우 의료보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뺑소니 차량 등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하  
여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우선적으  
로 적용됩니다. 그 손해배상 한도 내에서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급여는  
배제, 제한됩니다. 따라서 뺑소니 차에 부상을 입은 때에는 병원 진료시  
이 사실을 밝히고 자동차 보험진료를 신청하면 됩니다. 즉 그 손해보험배상 한도액까지는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  
를 부담합니다.

